

# 〈月峯記〉의 構造와 意味

— 京板本을 中心으로 —

陸 宰 用

## 〈차 례〉

I. 既存論議 檢討와 問題提起

IV. 竝立的 配列과 패턴 分析

II. 京板本の 書誌와 그 價値

V. 結 言

III. 作品의 順次的 段落分節

## I. 既存論議 檢討와 問題提起

〈月峯記〉는 明末 馮夢龍이 편찬한 三言<sup>1)</sup> 중의 하나인 『警世通言』 제 11卷에 나오는 〈蘇知縣羅衫再合〉을 繙案한 繙案小說이다. 그런데 줄거리 전체를 번안한 것은 아니고, 전반부만 〈소지현나삼재합〉을 거의 번역에 가까울 정도로 번안하였고, 중반부와 후반부는 원작에 전혀 없는 내용을 새롭게 창작하여 작품을 꾸미고 있어, 번안소설치고는 그 성격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월봉기〉의 異本으로는 경판본, 한글필사본, 한문필사본, 활자본 등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題名으로 變異되거나 改作되어 〈月峯山記〉, 〈蘇雲傳〉, 〈蘇學士傳〉, 〈鳳凰琴〉, 〈玉簫傳(江陵秋月)〉, 〈玉簫奇緣〉 등의 작품들이 필사본이나 활자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月峯記〉類’의 小說들은 당대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

1) 三言이란 『喻世名言』, 『警世通言』, 『醒世恒言』을 가리킨다.

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에 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논의가 되어 학계에 소개되었다. 먼저 김태준은 明代의 소설 〈蘇知縣羅衫再合〉이 〈蘇雲傳〉(소학사전·월봉산기·월봉기)과 〈玉簫傳〉(옥소기봉·강릉추월·봉황금)의 계열로 翻譯되어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 이에 관한 내용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간략히 고찰<sup>2)</sup>하였다. 김태준의 논의는 몇몇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소지현나삼再합〉을 〈소지현나삼復합〉으로, 續案을 續譯으로 잘못 말하는 등 부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소지현나삼재합〉과 ‘〈월봉기〉류’와의 관계를 최초로 언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윤제는 〈월봉산기〉를 〈강릉추월〉, 〈명사십리〉 등과 함께 運命小說<sup>3)</sup> 혹은 奇逢小說<sup>4)</sup>로 다루었고, 국문학에 나타난 우리 여성의 貞操觀念과 남녀의 戀愛關係를 이야기하면서는 〈월봉산기〉의 내용을 일부 인용<sup>5)</sup>하기도 하였다.

김혜자·남명희·박순혜는 한글필사본 〈월봉기〉의 내용을 사건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 정리하면서, 세창서관본 〈월봉산기〉와의 차이점도 간략히 언급하였다.<sup>6)</sup> 이 논문은 작품의 내용을 269항목에 걸쳐 順次的으로 정리하여, 줄거리를 충실히 소개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연구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書誌<sup>7)</sup>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224-229면.

3) 조윤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195면.

4) ———,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1, 321면.

5) ———,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344-350면.

6) 김혜자·남명희·박순혜, 「월봉기 자료에 관한 일고찰」, 『한국어문학연구』 13집, 이화여대 국어국문학회, 1973.

7) 책명·크기·부피에 관해서는 자세한 고찰을 하고 있으나,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혹은 누구의 소장본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화

서대석 교수는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소설 연구」<sup>8)</sup>란 논고에서 〈월봉산기〉, 〈소학사전〉, 〈강릉추월〉, 〈봉황금〉의 魏案樣相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 방면의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모든 작품을 世昌書館本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논자 자신도 인정하였듯이, 여타 활자본이나 필사본 그리고 방각본의 자료와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명구 교수는 韓中小說의 비교문학적 연구에 천착하면서, 그 중에서도 〈소지현나삼재합〉과 〈월봉산기〉의 비교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sup>9)</sup>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성과는 「〈월봉산기〉 연구-비교문학적 견지에서-」라는 논문에 잘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논자는 〈소지현나삼재합〉과 〈월봉산기〉의 내용을 ‘시대, 배경, 등장인물, 경계, 주제’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두 작품간의 비교를 자세히 하고 있으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월봉산기〉에 관한 서지적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쉬운 면이라 하겠다.

장개중 선생은 〈월봉산기〉와 三言과의 관계를 再論<sup>10)</sup>하였으나, 그 결론은 서대석 교수와 이명구 교수의 논의의 수준을 크게 넘어 서지 않는다. 다만 서울대 奎章閣에 收藏되어 있는 漢文筆寫本 〈月峯記〉를 처음

---

여대 「한국어문학과」에 비치된 도서목록에 〈월봉기〉라는 제명이 나와 있어, 필자의 조사 결과, 이를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8) 서대석,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소설 연구」, 『동서문화』 5집, 계명대학 동서문화연구소, 1973.

9) 이명구, 「이조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8, 24-31면.

——, 『옛소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5, 121-130면.

——, 「이조소설의 중국소설 수용자세-특히 전등신화와 삼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4집, 한국의국외대 중국문예연구소, 1979, 22-25면.

——, 「〈월봉산기〉 연구-비교문학적 견지에서-」,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29집, 성균관대학교, 1981.

10) 장개중, 「월봉산기와 삼언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으로 거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여기서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월봉산기〉에 관한 서지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동일 교수는 『한국문학통사 3』에서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소설에 관한 간략한 서술<sup>11)</sup>을 하였고, 이명구 교수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월봉산기〉 항목에서 자신의 기존 견해를 요약한 간략한 서술<sup>12)</sup>을 하고 있다.

그 후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몇몇 논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자세한 논의<sup>13)</sup>가 다시 이루어졌다. 먼저 심재숙 선생은 〈소지현나삼재합〉의 번안으로 성립된 21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서사담의 결합방식에 따라 4가지 類型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반영된 擔當層의 世界觀을 추정한 뒤, 각 유형이 어떠한 變異의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폈다. 위의 논의는, 그동안의 논의에 비해, 연구 대상 자료의 확대를 꾀하였다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각 작품들에 대한 서지적 고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모든 작품들을 4가지 유형으로만 추상화시켜 논의를 한 나머지 하나의 유형에 속한 각 작품들의 개별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필우 선생은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소설에 해당하는 8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단락 분절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이본군의 갈래와 계열 작품의 상호 관계를 상세히 살폈다. 하지만 筆寫本이나 坊刻本은 취급하지 않고, 활자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결론을 도출

1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102면.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783-784면.

13) 심재숙, 「〈소운전〉-〈월봉기〉계 작품군의 유형변이와 담당층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0.

이필우,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소설의 실상과 상호 관계」,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상에서 ‘〈月峯記〉類’ 小說들에 관한 既存論議 檢討를 해 보았거니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다. 먼저 텍스트 選定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몇 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논자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이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활자본으로 간행된 자료<sup>14)</sup>라는 점이다. 古小說은 筆寫本, 坊刻本, 活字本の 3종류로 전해 오는데, ‘〈월봉기〉류’는 이 3종류의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필사본이나 방각본은 度外視하고 활자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말하자면 最善本을 찾기 위한 原典批評의 노력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활자본 〈월봉산기〉가 비록 종래의 필사본을 토대로 하여 활자나 편집 형태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하여 출판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20세기의 세계관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결국 ‘〈월봉기〉류’ 소설들은 활자본보다 앞서 간행된 坊刻本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방각본의 母本이 될만한 先本 筆寫本이 확인되거나 구해지지 않았고, 이들의 最善本이 再構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부터는 마땅히 방각본을 연구의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研究方向과 方法에 관한 것이다. 魏案小說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월봉기〉류’ 소설들에 관한 개별적인 작품 자체의 분석은 치밀하게 고찰하지 않은 채, 원천작품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魏

14) 김태준은 서지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서대석 교수는 세창서관본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조운제는, 필자의 확인 결과, 1916년 新舊書林이나 朝鮮書館에서 간행된 자료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명구 교수는 최근의 논고에서 〈월봉산기〉를 거론하면서, 1916년에 初版 발행되었고, 1924년에 四版 발행된 新舊書林 刊을 예로 들고 있다. (이명구, 「鮮·明代 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특히 발어사(화두전환사)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8집, 1990, 31면.) 따라서 이명구 교수와, 이 교수에게 석사논문 지도를 받은 장개중 선생은 신구서림본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案樣相을 밝히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번안으로 인해 드러난 두 작품간의 차이, 나아가 한국인과 중국인의 세계관의 차이점 등을 밝혀 보는 일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월봉기>가 후반부의 3분의 2 가량은 이 땅에서 전혀 새롭게 창작되었고, 당시의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월봉기> 자체의 構造와 意味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일도 번안 양상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본고는 ‘<월봉기>류’ 소설들의 變異樣相과 그 계열 파악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경판본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構造와 意味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경판본 <월봉기>는 이제껏 학계에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먼저 그에 관한 書誌적인 사항부터 밝힌 뒤, 본론을 진행하기로 한다.

## II. 京板本の 書誌와 그 價値

경판본 <월봉기>는 파리 東洋語學校에 소장되어 있는데,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에 影印<sup>15)</sup>되어 비로소 학계에 소개<sup>16)</sup>되었다. 작자(번안자)는 未詳이고, 서체는 행서체이며, 판본으로는 67장본과 66장본이 있다. 이 경판본 <월봉기>는 1858~1861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sup>17)</sup>되는데, 이렇게 보면 1916년에 출판된 활자본 <월봉산기><sup>18)</sup>나 <월봉

15) 김동욱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第五冊, 羅孫書屋, 1975.(작품번호:148-152)

16) 경판본 <월봉기>의 書誌는, 이장헌 선생에 의해, 坊刻本 소설에 드러난 分卷에 의한 異本出現과 本文變異의 양상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고찰된 바 있다. (이장헌, 「경판방각소설의 상업적 성격과 이본출현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2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7, 186-190면.)

17) 유탁일,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167면 참조.

18) 註 14)번 참조.

기)<sup>19)</sup>보다 50년 이상이나 앞서 간행된 셈이 된다.

편의상 67장본을 경판 A본, 66장본을 경판 B본이라 명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경판 A본은 上(34장), 下(33장) 합쳐 二卷一冊으로 이루어졌는데, 上의 첫장 첫행에는 ‘월봉기 일’이라 적혀 있고, 下의 첫장 첫행에는 ‘월봉기 이중’이라 적혀 있다. 上, 下의 맨 끝장에는 刊所가 표시되어 있는데, 上에는 ‘紅樹洞板’으로 下에는 ‘由泉新刊’으로 각각 다르게 적혀 있다. 경판 B본은 上(20장), 中(23장), 下(23장) 합쳐 三卷一冊으로 이루어졌는데, 上, 中, 下 첫장 첫행에는 각각 ‘월봉기 일, 월봉기 이, 월봉기 삼’이라 적혀 있다. 刊所는 下의 맨 끝장에만 ‘泉新刊’이라 적혀 있다.

경판 A, B본 모두 每張의 1면당 15행, 1행은 24~30자로 이루어졌다. 1행을 평균 28자로 계산하면, 전체 분량은 A본이 55,440자 정도가 되며, B본이 55,020자 정도가 된다. 이것을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275~277장 가량이 된다.

경판 A본과 경판 B본은 B본의 改刻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同一한데, 영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兩本의 특징과 성격을 거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본은 上12b-13a<sup>20)</sup>가 중복 영인되었고, B본은 上1b가 중복 영인되었다. 이는 영인 과정상의 착오로 여겨진다.

둘째, A上20b와 B上20b는 동일한 내용이나, 맨 마지막 행인 A上20b15<sup>21)</sup>의 ‘의엇지되엇는지모로노라’ 以後를 잘라내어 B上20b15로 만든 후, B上을 끝내고 있다.

셋째, A上21a1-3을 없애고 이 부분을 改刻하여 B中1a1-3을 만들

19) 1916년 평양 光文冊肆에서 발행.

20) ‘上12b-13a’는 上卷 12張 後面에서 13張 前面까지를 가리킴. a는 前面을, b는 後面을 표시함.

21) ‘A上20b15’는 경판 A본 上卷 20張 後面 15行을 가리킴. 以下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引用典據를 표시함.

었다. 즉 B中1a 전체를 覆刻한 것이 아니라, A上21a의 원판에다가 오른쪽 1-3줄만을 새로 고쳐 改刻한 것이 B中1a라 할 수 있다.

넷째, A上33b13-15를 改刻하여 B中13b를 만들고, 또한 A上34a 전체를 없앤 후, A下1a1-6을 改刻하여 B中14a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경판 B본은 경판 A본의 上34a한 면을 모두 생략한 셈이다.

다섯째, A下10b14-15를 改刻하여 B中23b를 만든 뒤 B中을 모두 끝내고 있으며, A下11a1-2를 改刻하여 B下1a를 만들었다.

여섯째, 위에서 언급한 B본의 改刻한 행의 字體가 다른 곳과는 달리 글자가 굵고 폭이 크며, 또한 일부 改刻한 부분(B中13b-14a, B中23b, B下1a)의 冊板 태두리는 굵기가 원판과 다르거나 원판과 떨어진 흔적이 있다. 이는 원판에서 改刻할 부분만을 잘라낸 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새로 刻板하여 두 개를 붙였음을 말해 준다.

일곱째, 兩本의 下冊 맨 끝장은 모두, 책판이 마멸된 것으로 판을 찍어, 인쇄 상태가 번지고 희미하게 나와 판독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는 A본과 B본의 책판이 일부 改刻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同一板本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A본과 B본이 동일 冊板을 사용하지 않고, B본이 A본의 覆刻本이라면, 이렇게 인쇄 상태가 번져 판독하기가 불가능한 印本을 B본의 登梓本<sup>22)</sup>으로 만들어 刻手가 刻板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B본은 A본을 찍은 同一冊板을 일부 改刻하여 다시 간행한 것이므로, A본이 先本이고, B본은 後本이 된다.

여덟째, 넷째 번에서 살펴보았듯이, B본은 A본의 上34a 한 면을 무리하게 생략하는 과정에서 ‘왕가녀즈도 쏘흔 결단코 다른 마음이 업스 올지라’<sup>23)</sup>라는 내용을 ‘왕가녀즈도 다른 마음이 잇싸올지라’<sup>24)</sup>라는 내용

22) 覆刻本, 登梓本의 개념에 관해서는 유탁일 교수의 앞의 책, 15-16면 참조.

23) A下1a6

24) B中14a6

으로 改刻하여 문맥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sup>25)</sup> 이는 B본의 고쳐진 부분이 改惡된 요소이며, A본이 B본보다 先本인 동시에 善本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A본의 上, 下 兩卷을 B본에서는 내용의 일부를 改刻하면서까지 上, 中, 下 三卷으로 나누었는데, 그 의도<sup>26)</sup>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A본의 내용 전개상의 오류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이다. 둘째, 上, 下 양권을 上, 中, 下로 삼등분해서 판매해 영리상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이다. 셋째, 범위를 작게 분권을 하여 읽는 데 지루함을 덜게 하려는 판매자의 배려나 혹은 그러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로 인해서이다. 넷째, 역시 범위를 작게 분권을 하여 책이 빨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중 첫째 요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셋째, 넷째 요인도 그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방각본의 상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둘째 요인이라고 하겠다. 즉 同一한 張數로 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을 卷數를 많이 分卷하여 팔면 팔수록 그만큼 총판매수입금액은 증대<sup>27)</sup>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월

25) 이 외에도 A본의 ‘소조는 곳 덩부인의 복중 의로소이다’(A上20b15-21a1) 부분을 B본에서는 ‘소조 덩부인 복중 의이나다’(B中1a2)로 개각하여 ‘의’를 ‘의’로 誤刻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이미 이창현 선생에 의해 확인 된 바 있다. (이창현, 앞의 논문, 187-189면)

26) 하바드 대학교 燕京圖書館에 소장된 4권4책의 한글필사본 〈숙향전〉 제1권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分卷의 辯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을 이권 다 미라 흥운주 칙장수가 만썩고 보난니도 지루하고 쪼흔 칙이 쉬 상할 듯하와 이권을 분권하여 소권의 미엿싸오니……”(이상택, 「燕京圖書館本 韓國古小說에 관한 일연구」, 『관악어문연구』 16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1, 7면.) 즉 ‘책 張數가 많고, 보다가 지루하고, 책이 쉽게 상할 듯하여’란 말을 분권의 동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월봉기〉는 필사본이 아닌 방각본임을 고려할 때, 그 분권의 주된 의도를 이와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봉기》는, 방각업자가 二卷을 三卷으로 분권하여 팔 것을 생각할 정도로, 당시의 방각본 소설 중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던 작품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언하면, 蕡冊家에서와는 달리 방각본 출판은 몇 종류의 소설을 되도록 많은 부수씩 박아 내야만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므로, 일단 방각본으로 출판된 소설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 걸작이라고 할 만한, 인기 있는 작품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왜냐하면 방각업자의 입장에서 그만큼 많이 팔리는 작품일수록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분권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경판본 〈월봉기〉의 특징과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났으라고 본다. 경판본 〈월봉기〉는 활자본 〈월봉기〉나 〈월봉산기〉보다 반세기 이상이나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으며, 활자본 〈월봉산기〉에 나타난 내용상의 모순이나 당착<sup>29)</sup>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월봉기〉류’ 소설들의 變異樣相을 고찰할 때는 반드시 경판본 〈월봉기〉를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先本人 동시에 善本으로 확인된 67장본을 연구의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본고에서도 경판 A본이라 명명한 67장본을 대상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27) 이창현, 앞의 논문, 180면.

28)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413면.

29) 이명구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월봉산기〉에는 誤字로 인한 작중인물들의 이름이 조금씩 달리 표기되어 나타나고, 또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이미 죽은 인물이 뒤에 가서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처리되는 등 따위의 당착이 보인다.(이명구, 앞의 註 9)의 논문 중 「〈월봉산기〉 연구-비교문학적 견지에서-」, 12면 참조.) 그런데 경판본 〈월봉기〉에도 同一한 작중인물의 이름이 달리 표기되어 나타나는 하나, 〈월봉산기〉에서와 같이 내용상의 당착은 드러나지 않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異本對比는 攷를 달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Ⅲ. 作品의 順次的 段落分節

〈월봉기〉의 構造와 意味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작중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작품의 배경 및 스토리 진행의 절차나 순서를 알리는 요소<sup>30)</sup>도 고려하여, 전체 내용을 96개의 段落으로 順次的으로 分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명 영락연간에 탁주 땅에 어머니 장씨를 모시고 사는 소운, 소우 형제가 있음.

(2) 소운이 나이 이십에 진사하여 난계현령을 제수받자 모부인께 하직하고 부인 정씨와 노복들을 거느리고 임지로 떠남.

(3) 발행한지 여러날만에 광능 땅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자, 水賊 서릉의 꼬임에 빠져 왕상서집 배를 빙자한 서릉의 배에 탄.

(4) 배가 황천탄에 이르자 서릉의 무리가 노복들을 모두 죽이고, 재물과 소운의 부인 정씨를 약탈하여 집으로 돌아옴. 이때 소운은 서릉의 아우 서용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물에 던져짐.

30) 여기서 행한 단락 분절의 단위는 V. Propp의 'function'(등장인물의 행위를 한두 어절로 추상화한 것)이나 A. Dundes의 'motifeme'(V. Propp가 말한 기능function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입 상황initial situation까지를 포함한 것)의 개념보다 그 범위가 크다고 하겠다.(김화경,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7, 70-72면 참조.) 따라서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의 계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능 단위를 묶어 한 단락으로 취급한 것도 있다.(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29-30면 참조.) 이렇게 자세히 단락 분절을 한 것은 〈月峯記〉가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 줄거리 소개를 충실히 하려는 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서 분절한 단락을 기준으로以後 異本對比(이는 別致에서 다룰 예정임)까지도 하려는 필자 나름의 의도에서이다. 등장인물의 행위를 추상화한 기능 단위의 분절은 아무래도 異本對比를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론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 단위의 분석도 별도로 행할 것이다.

(5) 서룡의 도움으로, 정씨는 서룡이 대취하여 잠든 틈을 타 역시 서룡에게 잡혀와 있던 주파와 함께 도적의 소굴을 탈출함.

(6) 도망을 가다가 주파는 정씨와 신을 바꾸어 신고 우물에 뛰어들어 죽음.

(7) 홀로 달아나던 정씨는 산상의 암자를 찾아가 노승의 도움을 받고, 진통이 시작되어 일개 옥동을 분만함.

(8) 아이를 버리라는 선녀의 예언과 여승의 말을 듣고, 정씨는 나삼으로 아이를 싸고 金釵(금비녀)를 아이 품에 넣은 후 산문 밖에 버림.

(9) 정씨는 도적을 피해 더 깊이 은신할 곳을 찾아 노승과 함께 월봉산 자호암으로 들어가 세월을 보냄.

(10) 잠을 깬 서룡이 대로하여 정씨를 찾고자 뒤따라갔으나, 정씨는 찾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품고 돌아옴.

(11) 서룡이 아이를 同類 조터의 처에게 맡겨 젖을 먹여 키우도록 함.

(12) 물에 던져진 소운은 도공에게 구출되어, 도공의 집에 머물면서 세월을 보냄.

(13) 형의 소식을 탐지하려고 난계현으로 간 소운은, 소운이 도중에서 적화를 만났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절하여 마침내 숨이 끊어짐.

(14) 서룡은 아이의 이름을 계도라 짓고, 계도가 8~9세가 되어 서룡의 不仁함을 간하자, 즉시 가산을 수습하여 계룡현으로 이사함.

(15) 경성에서 設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도가 과거를 보려고 경성으로 향함.

(16) 도중 탁주 땅에 이르러, 계도는 장씨 집에 머물면서, 장씨로부터 가계의 내력과 자신이 장씨의 자식 소운과 모습이 방불하다는 말을 들음.

(17) 계도가 거문고로 낙춘방이란 곡조를 타자 장씨집 노고가 이를 보고 옛날 주인이 지니시던 거문고라 하며 놀라고, 장씨는 계도에게 나삼 한 벌을 건네줌.

(18) 도중 침첩산중(황학산)에서 선옹을 만나 차를 받아 마시고, '외손 소군에게 부치노라'는 글을 받음.

(19) 경사에 이르러 과거에 응시한 계도는 천자에게 친히 발탁되어 한림학사를 제수 받음. 늙은 야역 등이 모년에 난계현령 하였던 소태부와 방불하다

고 함.

(20) 병부상서 왕경이 계도를 찾아가 자기 딸과의 혼인을 부탁하자, 계도는 고향에 돌아가 술가하여 온 후 후의를 받들겠다고 말함.

(21) 천자가 계도를 남방계도순무도어사겸안찰사로 승품하고 남방을 진무할 것을 명함.

(22) 어사는 남방 출발에 앞서 왕상서께 나아가 인사를 하고, 상서는 왕소저를 불러내 어사와 相見하게 하고 예로 대하게 함.

(23) 황학산에 이르러 어사는 선동으로부터 차와, 정부인에게 전하라는 약낭을 건네 받음.

(24) 탁주에 이르러 어사는 장씨로부터 가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남은 거문고 한 짝을 건네받자 심경에 변화가 일기 시작함.

(25) 본향 가까이에 다다른 어사는 서릉에게 편지를 보내어 임무가 중하여 바로 지나가니, 이후에 임소로 찾아오라고 함.

(26) 월봉산에서 19년간 세월을 보내던 정씨는 남경에 순무도어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적어 바침.

(27) 원정을 받아 본 어사가 즉시 부인을 찾았으나 부인의 종적을 찾지 못함.

(28) 어사는 자기를 길러준 조터를 불러 자신의 출신 내력을 들음.

(29) 원정을 바친 정씨는 여승들로부터 어사가 서릉의 아들이란 말을 들은 뒤, 그들에게 이끌려 급히 산속으로 돌아감.

(30) 도공의 집에서 19년간 세월을 보내던 소운은 설원하고자 어사를 찾았으나, 어사가 서릉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급히 몸을 숨김.

(31) 미북으로 거리를 다니던 어사는 주가에서 탁주 사람(소운)을 만나 고향 이야기를 나눔.

(32) 부중에 돌아온 어사는 조터로부터 자신이 아이적에 입고 지녔던 나삼과 금비녀를 받고, 그것이 장씨로부터 건네받은 나삼과 똑같음을 확인. 어사가 비로소 아이덴티티를 확인함.

(33) 부중으로 소운이 찾아오자, 어사는 거문고를 꺼내어 소운에게 낙춘방을 타보이고, 장씨로부터 받은 나삼을 내보임.

(34) 어사는 근황을 탐문하러 내려왔던 월봉산 여승으로부터 정씨의 전후수 말을 낱낱이 들음.

(35) 어사는 산동 왕상서로부터 자신의 집을 방자하여 노략질을 일삼는 서릉을 처단하라는 서간을 받음.

(36) 서릉 일행이 부중으로 찾아오자, 어사는 주찬을 내어 대접하고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함.

(37) 남방 수령이 보낸 面鏡으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어사는 별당으로 소운을 찾아가 거문고와 나삼과 금비녀를 내보이며 신분을 탐문. 서로간에 父子間임을 확인하고 통곡함.

(38) 서릉을 제외한 서릉 일당들을 하옥하고, 어사와 소운은 서로 전후 지내온 사연을 이야기 함.

(39) 어사와 소운은 월봉산 자호암으로 정부인을 찾아가 상봉함. 이때 혼절한 정부인은 황학산 선옹이 어사에게 건네준 약을 먹고 회생함.

(40) 어사가 부모를 모시고 부중으로 돌아옴.

(41) 어사가 본관을 시켜 서릉을 처참하게 하고, 표를 올려 전후실상을 고한 뒤, 자신의 이름을 서계도에서 소퇴로 고침.

(42) 부모와 함께 남경으로 가는 도중, 쥬파의 묘와 도공을 찾아가 은혜를 표함.

(43) 남경에 이르러 숙부가 난계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운구해 와 치제한 후 탁주로 보냄.

(44) 탁주 장부인이 사당 앞 오동나무가 무성함을 본 후, 어사의 서간과 현령 부부의 글월을 받아보고 일희일비함.

(45) 영락 황제가 소퇴를 부마로, 왕경의 딸을 태자비로 삼고자 함.

(46) 황후가 서부인(왕경의 처)에게 글을 보내 왕소저와 함께 한 번 궁중으로 들어와줄 것을 청했으나, 왕소저는 청병하고 서부인만 입궐함. 황후가 서부인에게 황상의 뜻을 이야기 함.

(47) 서부인이 퇴궐하여 왕소저에게 태자비 되기를 개유하나 왕소저는 완강히 거절함.

(48) 황제가 익일 조회에서 소운에게 병부시랑, 소퇴에게 예부상서의 벼슬

을 내리고, 왕경을 불러서는 혼사 이야기를 함.

(49) 황제가 소티에게 다시 조서를 내려 제도대도독을 제수하고 인점을 준 후, 제읍을 순행하라고 명함. 이튿날 소티는 부모를 모시고 삼일정에 나와 拜別함.

(50) 소상공(소우)의 상구가 탁주에 이르자 장부인과 뉴씨(소우의 처)가 통곡하고, 오래지 않아 소시랑 부부가 도착하여 장부인, 뉴씨와 상봉함.

(51) 소시랑 일행이 탁주를 떠나 京師로 가는 도중 황학산에 이르러 정처사(정씨의 父)가 보낸 시비로부터 글월과 두어 병 차와 약간의 진찬을 건네 받음.

(52) 소시랑 일행이 경성에 도착하여, 소티가 등과 후 나라에서 賜給한, 장원각에 머무름.

(53) 소시랑이 소티의 以前 혼사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집금오 덩현의 딸과 정혼 납빙함.

(54) 천자가 소시랑을 인견하고 소티를 부마로 삼을 뜻을 말함. 왕상서 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 서부인과 왕소저가 탄식함.

(55) 소시랑이 예부를 통하여 천자에게 빙물을 드리고, 덩금오 집에는 빙물을 도로 환송해줄 것을 요구. 이 때 정(덩)소저는 貞節을 내세우며 빙물 돌려주기를 완강히 거부함.

(56) 소티가 남방을 진무하고 돌아오자, 上이 대연을 배설하고 천하병마대도독을 제수함. 소티가 돈수사은하고 부중에 돌아와 조모 장부인을 만남.

(57) 소티가 표를 올려 관직을 거두어 주길 바라고, 또한 세 가지 난처한 일을 들어 부마를 사양함.

(58) 上이 공주에게 빙물을 도로 내어줄 것을 이야기 하자, 공주는 자신의 빙물을 환송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소티가 왕소저와 혼인하기를 바랍.

(59) 上이 궁인 왕씨를 보내어 왕소저의 의향을 탐문. 왕소저는 태자비 되기를 失節을 들먹이며 한사코 거절함.

(60) 공주가 빙물 넣은 함에 다른 물건을 넣어 소상서 집으로 거짓 환송함.

(61) 소티와 왕소저가 상의 윤허를 받아 택일 행례함.

(62) 공주가 소상서 댁에 빙물을 거짓 환송한 줄 안 상과 황후는 소티를 부

마로 정하고, 공주를 소티의 차(次)부인으로 삼고자 함.

(63) 성례한 왕씨는, 공주를 생각하며, 시부모께 拜謁하는 예를 미루고, 상은 특별히 왕씨를 한국정렬부인으로 봉함.

(64) 소티가 만취하여 왕상서 부중에 이르러 상서의 친척 변복 등과 담소함.

(65) 황명으로 왕씨를 소티의 元位로, 공주를 차부인으로 정하고, 소티와 공주가 성례함.

(66) 상이 소운을 병부상서검문역각태학사로, 소티를 우승상좌복야계양도위로, 왕씨를 숙현원부인으로, 공주를 한국숙렬공주로 봉하는 등 소티 가족에게 각각 직첩을 내림.

(67) 왕씨와 공주가 차례로 장부인과 소상서 부부께 배알하는 예를 행함.

(68) 왕씨와 공주가 후원에서 춘경을 완상하며 정소저의 처지를 생각하고, 승상을 만나 정소저를 승상의 3부인으로 삼을 것을 얘기함.

(69) 정소저의 부 당현(정현)이 중서령 조귀의 무고로 인하여 상의 노여움을 사, 상은 당현을 시현교에 내어 처참하라고 함.

(70) 소승상의 구원으로, 상이 당현의 죄를 사하여 남방 율능도로 안치하라 하자, 당현은 부인 조씨, 정소저 등 가족을 거느리고 발행함.

(71) 승상이 당현의 配所에 전해줄 書簡과 백금 천냥을 노비 십사오인에게 주면서 당현을 따라가 모시라고 하고, 왕씨와 공주도 신물을 정소저에게 전달함.

(72) 당현 일행이 계성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고을 본관 비옹이 정소저를 머느리로 삼고자 당현에게 청혼하였으나 거절당함.

(73) 비옹이 군사를 시켜 무례한 짓을 저지려려고 하자, 정소저는 기지를 발휘하여 부친이 탄 배와 비옹 일행을 멀리 떼어 놓고, 물에 뛰어 듦. 이 때 유모 옥단과 시비 계랑도 함께 따라 투신함.

(74) 당현 일행이 율능도에 도착하여 승상이 준 서간을 본현에 전하니, 본관이 잘 보살펴 줌.

(75) 물에 빠진 정소저 일행을 거북이 등에 싣고 가다가 물가에 내려 놓음.

(76) 월봉산 자호암 여승 야선이 이들을 발견하고 산중 절로 데리고 감.

(77) 자호암에 머물며 야선은 수를 놓고, 계랑 모녀는 금사로 무늬를 놓아 팔아 세월을 보내니 의식이 惝然함.

(78) 정씨(소저의 母) 사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글자 없는 청옥비에 정소저가 비문 글을 쓰고, 계랑이 새김.

(79) 덩현의 일로 소원해졌던 황상과 승상이 다시 가까워지고, 왕씨와 공주는 정소저의 투강한 사연을 전해듣고 참혹해 함.

(80) 천자가 승상에게 남방에 내려가 왕화를 반포하고, 設科하여 인재를 뽑으라 명하자, 승상이 가족들과 작별하고 남방으로 발행함.

(81) 도중 대풍을 만나 목욕탄 아래로 떨어짐. 이후 길을 찾아가다가 월봉산 자호암에 다다름.

(82) 정소저가 자호암에 머무는 줄 안 승상은 옥단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정소저를 만나 도와줄 방법을 의논하고자 함.

(83) 정소저는 사사로이 남자를 상대할 수 없다 하여, 승상께 드릴 서간을 적어놓고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함.

(84) 승상의 꿈에 청의동자가 나타나 정소저의 위급함을 알려주자, 승상이 급히 달려가 침을 놓고 약을 달여 먹여 회생시킴.

(85) 승상이 덩충, 방은을 시켜 정소저, 옥단, 계랑, 야선이 울능도에 무사히 이르도록 호위하게 하고, 자신은 모부인 비명을 베끼고, 소저의 서간과, 벽상 가사를 낭중에 감추고 남방으로 발행함.

(86) 덩현이, 소승상의 주선으로 생도는 궁핍하지 않으나, 女兒의 참사를 생각하며 소저의 영위를 배설하고 조식 곡읍으로 세월을 보냄.

(87) 덩현 부부와 정소저가 상봉함. 소승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덩현은 승상께, 소저는 공주와 왕씨께 글월을 올림.

(88) 승상이 남방에서 돌아와 부모를 뵈고, 월봉산에서 정소저를 만난 사연을 고함.

(89) 승상이 왕씨와 공주에게 자호암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비문과 가사와 정소저의 서간을 보여주며 함께 걱정함.

(90) 상이 덩현을 伸冤한 왕현의 상소를 보고 덩현의 죄를 사하자, 덩현이 가족과 함께 경성으로 돌아옴.

(91) 비응은 파출되어 다시 벼슬을 얻지 못하고, 조그는 해도에 내침을 당함.

(92) 비응이 시어사 심연에게 황금 뇌물을 주어, 비응 자신을 옹호하고 승상과 정소저를 무고하는 疏를 올리게 함.

(93) 상이 정소저와 옥단 등을 불러 전후 사연을 고하게 하고, 승상이 자호암에서 배겨온 壁上 詩와 정부인 비문을 제신들에게 보여주며 정소저를 칭찬함. 비응를 문죄하고, 심연을 원지에 정배함.

(94) 상이 왕씨를 소티의 元位로 정함. 이어 정소저를 절효절현부인으로 봉하여 공주와 함께 소티의 좌우 부인으로 정하고, 소티와 정소저의 성례를 명함.

(95) 길일을 택하여 소티와 정소저가 행례함.

(96) 3부인의 자녀 출산. 장부인과 소운 부부의 죽음. 소티 부부 또한 부귀를 누리다가 승천함.

위에서 分節한 段落들은 스토리 진행에 따라 전체의 줄거리가 다시 三分된다. 이를 전반부·중반부·후반부로 나누고 각각의 요지를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단락<sup>31)</sup> 1~44): 난계현령을 제수받고 임지로 부임하던 소운 일행이 적화를 만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때 부인에게 잉태 되었던 아이가 도적에게 양육되어 과거에 급제한 다음 어사가 되어 부모를 찾고 원수를 갚음.(上1a~上26b<sup>32)</sup>)

**중반부**(단락 45~68): 가족을 상봉하고 京師로 돌아온 소티가 다소의 곡절(혼사장애)을 겪은 다음에 왕경의 딸 왕소저와 결혼하여 제1부인을 삼고, 다시 공주와 결혼하여 제2부인을 삼음.(上26b~下14a)

**후반부**(단락 69~96): 소운이 소티 모르게 청혼하여 빙물까지 보냈던 정소

31) 以後 단락 번호를 나타내는 괄호 표시는 경우에 따라 생략하기로 한다.

32) ‘上1a~上26b’는 上卷 1張 前面부터 上卷 26張 後面까지를 가리킴.

저의 父 정현이 간신의 참소를 받아, 온 가족이 유배되는 고통을 당함. 이러한 과정에서 정소저는 부모와도 헤어지는 시련을 겪게 되나, 이를 참고 절행을 지키어 소티의 도움으로 다시 가족과 상봉하고 終局에는 소티와 결혼하여 제3 부인이 됨.(下14a~下33a)

전반부의 줄거리는 원천작품 〈蘇知縣羅衫再合〉과 거의 일치하나 超越의 世界(단락 8, 18, 23, 39)를 介入시켜 작품에 이원적 세계관을 갖게 하고, 신성소설적 성격을 띄게 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점<sup>33)</sup>이라 할 수 있다. 중반부와 후반부는 작자(번안자)가 새롭게 창작한 부분이다.

#### IV. 竝立的 配列과 패턴 分析

제 III 장에서 分節한 段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중인물들<sup>34)</sup>의 헤어짐과 만남의 양상이 〈分離－試鍊－結合〉<sup>35)</sup>이라는 原型的 循環構造<sup>36)</sup>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復讐와 報恩’, ‘毀節과 貞節’을 뜻하는 작중인물의 행위도 작품 전체에 걸쳐 되풀이하여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절한 단락들을 〈分離－結合〉<sup>37)</sup>, 〈復讐－報恩〉<sup>38)</sup>, 〈毀節－貞節〉<sup>39)</sup>이라는 기능 단위로

33) 〈蘇知縣羅衫再合〉과 鏡판본 〈月峯記〉와의 對比는 攷를 달리하여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34) 여기서의 작중인물이란 소티의 가족과 정소저의 가족을 가리킨다.

35) 分離와 結合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단락 번호는 以後 別表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試鍊을 나타내는 단락으로는 9, 12, 26, 30, 77, 81, 86번 등을 들 수 있다.

36) 반겐넵은 개인들의 ‘인생 고비(life crises)’에 수반되는 儀式을 분석하여 〈분리－전이－통합〉이라는 세 가지의 주요 국면으로 나누었다.(A. 반겐넵,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6면.) 또한 캠벨은 單－神話의 핵단위로 〈분리－입문－회귀〉의 양식을 들었다.(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평단문화사, 1985, 32면.)

나누어 이들 대립의 쌍을 병립적으로 배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別表 안의 숫자는 각 단락의 번호를 나타낸다.

(別表)

|   | 분 리                  | 결 합                          | 복 수      | 보 은 | 해 절            | 정 절            |
|---|----------------------|------------------------------|----------|-----|----------------|----------------|
| 전 | 2<br>4<br>8          |                              |          |     | 4              | 5<br>9         |
| 반 | 13                   | 16'<br>24'                   | 26<br>30 |     | 10             |                |
| 부 |                      | 31'<br>33'<br>37<br>39<br>43 | 38<br>41 | 42  |                |                |
| 중 | 49                   | 50                           |          |     | 47<br>54<br>55 | 47<br>54<br>55 |
| 반 |                      | 56                           |          |     | 58             | 57<br>58       |
| 부 |                      |                              |          |     | 59             | 59<br>60       |
| 후 | 69<br>70<br>73<br>80 |                              |          |     | 72<br>73       | 72<br>73<br>83 |
| 반 |                      | 87                           |          | 87  |                |                |
| 부 |                      | 88<br>90                     | 91<br>93 |     |                | 93             |

( '는 假(豫備)결합을 나타냄)

37) 分離는 작중인물이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의 기존질서로부터 나뉘어 떨어지는 것을, 結合은 그 반대의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分離－結合〉과 〈毀節－貞節〉항은 우세하게 드러나고, 〈復讐－報恩〉항은 미약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復讐－報恩〉항이 서사의 중반부에는 보이지 않고 모두 전반부와 후반부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毀節－貞節〉항이 서사의 중반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는 중반부의 줄거리가, 과거에 급제하고 부모를 찾은 소리가 다소의 혼사장애를 거친 뒤 왕소저를 제1부인으로 맞이하고, 공주를 제2부인으로 맞이하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한편, 〈復讐－報恩〉항은 몇 개 밖에 드러나지 않아 작품의 의미 파악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단락 분절에 의거한 기능 단위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인물의 대화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티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復讐〉와 〈報恩〉 모티프는 주제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중심 모티프(leitmotive)<sup>40)</sup>로 작용하고 있

38) 復讐는 원수를 갚거나 혹은 갚고자 하는 주체의 행동을, 報恩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주체의 행동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서의 '復讐'는 '雪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39) 毀節은 타인의 절개를 깨뜨리고자 하는 주체의 행동을, 貞節은 자신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주체의 행동을 나타낸다.

40)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140면. 모티프의 일반적인 의미는 시대와 작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문학 텍스트에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정한 요소—가장 작은 서사적 단위, 낱말, 문구, 사건, 기법, 공식—을 가리킨다. 모티프는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와 일치할 수도 있고, 단어의 부분(의미, 의미론적 자질)과도 상응할 수 있으며, 통합체syntagma 또는 문장과도 상응할 수 있다. 아울러 모티프는 단일한 작품 속에 자주 반복되는 중요한 어구, 고정된 묘사, 이미지의 복합 등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본고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모티프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B. Tomashevsky는 작품의 주제적 요소(thematic elements)를 분해했을 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주제적 체제의 가장 작은 요소를 모티프로 보았다.(위의 논의는 다음 서적참조. 한용환, 앞의 책, 138-141면., M.H. Abrams,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대방출판사, 1985, 174면., Lee T. Lemon and Marion J. Reis,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p. 67.)

다. 이에 관해서는 잠시 후 패턴 分析을 논할 때 상술하기로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들 대립의 쌍에 드러난 의미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分離-結合〉항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소티의 가족과 정소저의 가족이 겪는 〈分離-試鍊-結合〉이라는 原型的 循環 構造 속에서 시련 단락만을 제외한 것이다. 別表의 〈분리-결합〉항에 나타난 단락 번호 중 대부분은 소티의 가족이 겪는 사항이며, 정소저의 가족이 겪는 사항<sup>41)</sup>은 후반부에만 몇 번 드러나고 있다. 이들 가족이 겪는 〈분리-결합〉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티의 가족이 겪는 〈분리-결합〉의 양상

1. 정씨……소티: 母子間(8, 39, 49, 80, 88)<sup>42)</sup>
2. 소운……정씨: 夫婦間(4, 39, 49)
3. 소운……소티: 父子(腹中の 子)間(4, 31, 33, 37, 80, 88)
4. 장씨……소운: 母子間(2, 50)
5. 장씨……정씨: 姑婦間(2, 50)
6. 장씨……소티: 祖母와 孫子(腹中の 孫子) 間(2, 16, 24, 56)
7. 장씨……소우: 母子間(13, 50)
8. 소운……소우: 兄弟間(2, 43, 50)
9. 정씨……소우: 兄嫂와 媳叔 間(2, 50)
10. 소우……뉴씨: 夫婦間(13, 50)
11. 정씨……뉴씨: 同壻間(2, 50)
12. 소운……뉴씨: 媳叔과 季嫂 間(2, 50)
13. 소티……왕소저: 夫婦間(80, 88)
14. 소티……공주: 夫婦間(80, 88)

41) 단락 69, 70, 73, 87, 90번.

42) 괄호 안의 숫자는 제 Ⅲ 장에서 분절한 해당 단락 번호를 나타낸다.

정소저의 가족이 겪는 〈분리-결합〉의 양상

1. 영락황제……정현: 君臣間(69, 70, 90)
2. 정현……정소저: 父女間(73, 87)
3. 조씨……정소저: 母女間(73, 87)

〈分離-結合〉을 하는 主體의 關係에 따라 그 樣相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티의 가족은 14가지로, 정소저의 가족은 3가지로 나타난다. 앞서 제Ⅲ장에서 전체의 줄거리를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티의 가족은 주로 서사의 전반부<sup>43)</sup>에서, 정소저의 가족은 서사의 후반부에서 〈분리-결합〉의 양상이 나타난다. 위에서 제시한 제 양상에서, 괄호 안에 적힌 해당 단락 번호를 따라 그 내용을 읽어 보면, 각 주제간에 이루어진 〈분리-결합〉의 줄거리가 쉽게 이해된다.

소티의 가족의 경우, 시련을 동반한 〈분리-시련-결합〉의 원형적 순환구조가 1~12번에 걸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서사 진행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1~8번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제Ⅲ장에서 順次的으로 分節한 段落(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운이 난계현령을 제수받고 아이를 잉태 중인 부인 정씨만을 데리고 임지로 떠나가면서 이들 가족의 分離는 시작된다. 소운 夫婦는 老母 장씨를 비롯한

43) 단락 49, 50, 56번의 내용은, 앞서 편의상 줄거리를 삼등분한 구분에 의하면, 서사의 중반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는 전반부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전반부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소티의 가족이 겪는 〈分離-結合〉의 樣相 가운데, 단락 (80), (88)번의 내용은 소티가 立身揚名 후에 王命으로 남방에 내려가 왕화를 반포하고, 設科하여 인재를 뽑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만나는 상황이라 앞 부분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다. 즉 여기서는 가족들과 分離된 소티에게 큰 시련이 동반되지 않고, 分離 자체가 단지 역경에 처한 정소저를 도와주기 위한 계기로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티의 가족이 겪는 〈분리-결합〉의 양상은 서사의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우 부부 등과 헤어지고, 동시에 장씨는 자식과 며느리 그리고 腹中の 孫子와 헤어진다. 단락 (4)에서 소운 夫婦는 水賊 서릉 무리의 노략질에 의해 分離되고, 이때 소운은 자연적으로 腹中の 자식과도 헤어진다. 단락 (8)에서 정씨는 아들을 낳자마자 핏덩이를 羅衫으로 싸서 山門 밖에 버려야 하는 극도의 分離의 苦痛을 맛본다. 단락 (13)에서 소우는, 임지로 간 형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형의 소식을 탐문하려고 집을 나서면서 老母 장씨와 헤어진다. 하지만 형의 불길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목숨이 끊어지면서 老母 장씨와 끝내 死別한다.

전반부에 드러난 소택의 가족이 겪는 分離의 苦痛은 순전히 水賊 서릉 일당이 행한 掠奪에 그 원인이 있다. 이들은 후에 몇 번의 假結合<sup>44)</sup>을 거쳐 단락 (37), (39), (56)에 와서야 비로소 완전한 만남을 이룬다. 한편 형의 소식을 탐지하려고 집을 떠나 客死한 소우는, 단락 (43),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屍身이 가족 곁으로 운구되어 온 뒤에야 그들과 死後 結合을 한다.

정소저의 가족의 경우도 시련을 동반한 〈분리-시련-결합〉의 원형적 순환구조가 위에서 제시한 1~3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소저의 父 정현과 소택의 父 소운은 以前에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나, 임금이 소택을 부마로 삼고자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사이였다.<sup>45)</sup> 段落 (69), (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현은 간신의 참소를 받아 부인 조씨와 딸 정소저와 함께 남방 율능도로 유배를 당한다. 이때부터 정현의 가족은 사회의 기존질서로부터 隔離된다. 하지만 雪上加霜으로, 段落 (73)에서 정소저는 父母를 구하고 貞節을 지키고자 강물에 뛰어들어 부모와도 헤어진다. 가족과 分離된 뒤, 정소저는 소택의 母 정씨가

44) 서로가 신분을 확인하기 전, 가족임을 확실히 모르고 만나는 것을 가리킴.(단락 16, 24, 31, 33번.)

45) 단락 53, 54, 55번 참조.

머물렀던 월봉산 자호암에서, 정현 夫婦는 울릉도에서 각각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sup>46)</sup>, 段落 (87)에서 이들은 소타의 도움으로 相逢한다. 그 후 段落 (90)에서 임금이 왕현의 상소를 보고 정현의 죄를 赦하자, 정소저의 가족은 다시 경성으로 돌아오고 사회의 기존질서에 再編入된다.

서사의 전반부에서 소타의 母 정씨가 겪는 〈분리-결합〉의 양상과 후반부에서 정소저가 겪는 〈분리-결합〉의 양상은 女性受難과 節行의 鼓吹라는 점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작자는 전반부에서 정씨가 겪었던 苦痛과 또 그녀가 堅持했던 節行鼓吹意識을 후반부에서 정소저에게도 똑같이 반복하게 함으로써 은연중 貞節觀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月峯記〉는 전·후반부에 드러난 〈분리-시련-결합〉이라는 원형적 순환구조가 중반부의 婚事過程을 축으로 하여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큰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분리-시련-결합〉의 과정 속에서 작중인물들은 雪冤의 의지와 復讐心에 불타기도 하고, 조력자에게 報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毀節의 위험에 맞서 목숨을 걸고 貞節을 지키고자 노력도 하는 것이다.

다음은 〈復讐-報恩〉향과 〈毀節-貞節〉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관한 내용도, 別表에 제시된 대로, 해당 단락 번호를 읽어 내려가면 그 줄거리가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복수-보은〉향은 서사의 중반부에는 보이지 않고 모두 전반부와 후반부에만 미약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훼손-정절〉향은 반대로 서사의 중반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점이다.

한편 〈月峯記〉에는 ‘復讐·報恩·貞節’ 모티프가 작중인물의 대화나 내적 독백 등을 통해 패턴화되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작품의 의미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의 패턴이란 플롯 속의 우발적 사건과 작은 사건들의

46) 단락 77, 86번 참조.

되풀이와 같은 意味 있는 反復<sup>47)</sup>을 뜻한다. 말하자면 일정한 사건이나 행동, 모티프, 심리적 독백 등과 같은 소설적 요소들이 한 작품의 내부에서 「連續」되거나 「反復」될 때 그 반복되는 요소나 혹은 반복적 기교 그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sup>48)</sup>이다.

〈復讐－報恩〉항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단락 분절에 의거한 機能 단위로 보면 미약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들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을 살펴보면, 복수와 보은 모티프는 작품 전체에 걸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주제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中心 모티프(leitmotif)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毀節－貞節〉항의 ‘貞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작중인물의 구체적인 行動보다는 그들의 대화나 내적 독백을 통하여 정절 모티프는 훨씬 많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복수－보은〉항과 〈혜절－정절〉항의 意味를 논하되, 지금부터는 단락 분절에 의거한 機能 단위의 분석보다는, ‘復讐·報恩·貞節’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에 드러난 패턴 분석을 위주로 作品의 意味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復讐 모티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月峯記〉에 드러난 복수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을 스토리 진행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복수<sup>49)</sup> 모티프〉

1) 당시 녀승더러 왓 니 지금 구초이 투싱하든 평성자원을 신설하고 아즈의 존망을 알고저 하미니 노스는 나를 위하여 세상 소문을 듯보아 주미 엇더 하노(上15b<sup>50)</sup>)

47) 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9, p. 655, 686.

48) 한용환, 앞의 책, 446-447면.

49) 여기서의 ‘復讐’는 ‘雪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50) ‘上15b’는 上卷 15張 後面을 가리킴.

2) (노승 왈) 지금 나라의서 순무도어스를 남경의 보녀여 다스리미 공사의  
바리우미 일월 갖하여 사람의 원억함을 지극히 신설한다 허더이다 허니 당시  
듯고 생각하되 나의 지원함을 고혈터 업더니……너 드러가 원정을 알외여 요  
형 득니하면 죽어도 한이 업스리라……축박의 만단 이원을 기록하여 가지고…  
…당시 나아가 원정을 드린디(上15b~16a)

3) (당시 왈)첩이 쏘흔 도적의 욕을 두려 산문을 나지 못하고 마지 못하여  
유아를 길히 바린 후 '지금' 소성을 모르고 서름으로 세월을 보낸지 이의 십구  
년이라……지원극통함을 알외느니 바라긴터 처삼 숲피스 복분지원을 푸러주소  
서(上16a)

4) (소운이)이적을 타 나의 심사를 설원하여 보리라 하고 정원을 지여 가  
지고 귀쥬성의 드러가(上17b)

5) 어씨 티로 왈……너 야모리 내게 길너스나 엇지 부모 원슈를 잡지 아니  
하리오 여등은 죄를 알게시니 빨리 직초하라 하고 장문하니(上21a~21b)

6) 현녕 왈……네 스스로 성명과 근본을 세다라 소성간 허여졌던 골육이  
서로 맞느고 부모 원슈를 잡호니 이는 하늘이 네 성효를 감동하시미로다(上  
21b)

7) (어씨 왈)서릉지당을 다 죽일 거시오 조티부처는 비록 소조를 폭양한  
공이 이스나 쏘흔 형벌을 면치 못하리소이다(上23b)

8) (조시 왈)소승상의 은혜 가장 지극하미 혼장 글노 그 은혜를 스레하고  
녀아의 원스함을 기별하여 비가의 원슈를 잡게하미 엇더하노 공이 탄왈 소공  
이 나를 구하든 공되니 너 치스혈비 아니오 녀아의 일은 도시 천슈여니와 너  
스스로 충성을 닦으면 다시 천일을 볼거시오 비적의 원슈도 자연 감홀지니 다  
만 하늘이 구버 슬피시를 바라노라 허더라(下17b)

9) 츠시 니부에서 비홍을 탐장하드로 파출하미 비홍이 도라와 다시 벼술을  
엇지 못하여 항상 앙양하더니 조기는 본터 저의 한당이라 이의 회도의 너치여  
스미 다시 모의혈길 업스되 본터 간스현 심술이라(下31a)

10) 문득 아나니 이서 비홍더러 왈……부마의 원부인이 그 오라비 왕현으로  
하여곰 중서성 문서를 상고하여 덩공을 신원하고 미구의 덩소져로 부마의 삼  
부인을 삼으리라 허거늘……(비홍이 헤오터)나의 파출하미 필시 소부미 니부

의 청혼비오 당시 혼인되는 날 필경 나를 허혈거시미 너 선발제인하리라 하더니(下31a)

11) (심연이 소봉을 올려 왈)올능 죄인 조끼는……석년 중서성의셔 흥역의 상소를 엿스온즉 공고히 성명이 갓스온지라 천위 진첩하스 덩현을 윈디 총군 하엿더니 그 후 왕현이 상소하여 덩현을 신원하옵고 조끼를 정빙하오니 이는 당연하옵거니와(下31b)

12) 니부 총저 한원길이 출반 주왈 신이 비홍을 파출하옵기는 그 탐장하물 증계하미오 덩현의 신원하오른 도위 원부인 왕시 그 오라비를 권하여 문서를 상고하여 임피하를 신설하오미오(下32a)

13) (상이)심연을 삭탈하스 계하의 쫓니고 비홍을 나문하시니 비홍이 어석을 당하여 옥단 등의 구조를 드르미 일호나 기망치 못혈줄 알고 전후 죄상을 기기히 복초하거늘 상이 드르시고 심분 통하하스 비홍을 한거신총군하고 심연을 윈디 정빙 하시고(下32b)

復讐 모티프는 모두 13가지로 추출할 수 있는데, 서사의 전반부와 후반부에만 드러난다. 즉 1)~7)번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되고, 8)~13)번까지는 후반부에 해당된다. 복수 모티프가 서사의 중반부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은 앞서 제시한 別表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sup>51)</sup> 이는 중반부의 줄거리가 소타의 立功과 富貴獲得의 확인을 위한 婚事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전반부에 드러난 복수 모티프는 모두 소타 가족이 서릉 일당에 대해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가 된 소타가 서릉 일당을 처단하여 父母의 怨讐를 갚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원천 작품 〈蘇知縣羅衫再合〉에 드러난 줄거리와 유사하다. 즉 서릉을 죽여

51) 別表의 복수 단락에 해당하는 복수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 번호를 연관시키면 다음과 같다. 화살표의 왼쪽이 別表의 단락 번호이고, 오른쪽이 패턴화 양상 번호임. 모두 번호에 붙은 괄호는 생략함. 전반부: 26→2, 3/30→4/38→5, 6/41→7/ 후반부: 91→9, 10/93→13

부모의 원수를 갚고, 헤어졌던 骨肉相逢의 기쁨을 맛본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점은 원천작품의 情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서릉 일당에 의해 가족이 분리된 뒤 겪는 試鍊의 기간이 19년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길어, 원수를 갚겠다는 復讐意識의 정도가 후반부보다 심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후반부와는 달리 원수를 갚는 모든 일이 소티 一個人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후반부에 드러난 복수 모티프는, 이 땅에서 새롭게 창작된 것으로, 정소저의 가족이 雪冤을 하고, 怨讐를 갚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다수의 敵對者와 助力者가 등장한다. 敵對者로는 정현을 무고한 조귀와, 정소저의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고 정소저의 失節을 강요한 비응<sup>52)</sup>과, 비응의 뇌물을 받고 소티와 정소저를 무고한 심연 등이며, 助力者로는 정소저 가족 편에 선 소티, 왕소저, 공주, 왕현, 한원길 등이다. 여기에는 惡을 편드는 세력과 善을 옹호하는 세력 간의 집단 대결 양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상대방을 시기하고 임금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爭寵의 성격도 띠고 있다.

〈月峯記〉에 드러난 복수 모티프는 원천작품의 줄거리에 충실한 전반부의 복수담에다, 이 땅에서 새롭게 창작된 후반부의 복수담이 첨가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전반부의 복수담에 대를 이루어 후반부에도 복수담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후반부 모두 惡에 대한 善의 勝利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후반부의 복수 모티프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遠地에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끝맺고 있어, 復讐意識의 정도가 전반부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다. 이는 전반부와 對比하여 ‘복수’에 관한 우리 民族의 달라진 情緒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報恩 모티프를 살펴보기로 한다. 작품에 드러난 보은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을 스토리 진행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52) 본문에서는 ‘비응’과 ‘비홍’으로 뒤섞여 표기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

〈보은 모티프〉

1) 서용이 소리를 나죽이 하여 갈오터 너 부인을 구코져 하여 이르렀느니  
쥬과는 부인을 모셔 몸을 감초와 옥을 면하라 하거늘……낭인이 의미 그 어진  
뜻을 아랴스미 급히 이러 사례하며 위걸하니(上4b)

2) (당부인)창연 왈 이의 이름도 그대의 공이여늘 엇지 참아 바리고 가라  
오 쥬피 왈 부인 말슴도 감스하거니와 부인은 일정 옥을 당홀거시니 지체치  
말고 밧비 힘하소서(上5a)

3) (소운이 이르티)나는 탁주파 사람으로서 약간 은낭을 가지고 어딜를 가  
다가 적환을 만나 이의 이르렀더니 의외 은인의 구활하를 입으니 지성지은을  
엇지 측량하리오(上7a~7b)

4) 소운 왈 그티 말을 드른즉 아득한 마음이 활연하니 도로혀 감사무지로  
라(上7b)

5) (노과 왈)지금 일식이 느꼈스미 이곳서 쉬시미 엇더하니잇고 성왕 그티  
말이 감스하거니와 귀덕 존성은 뉘시며 그티는 엇던 사람이뇨(上9a)

6) (계도)답왈 천천 초쳐로 엇지 이의 머물며 또 쥬과로 관티하시니 지극  
감사하외다(上9b)

7) (장부인 왈)그티 니번 과형의 반다시 계화를 적글지니 노침을 잊지 말  
고 나의 두 족식의 사상을 탐지하여 쥬면 맛당이 결초보는 하리라 하니(上  
10b)

8) (계도)표를 읊녀 왈 신이 참방하고 벼슬을 하오미 천은이 망극하온지라  
이제 고향의 도라가 노부의게 영화를 회고져 하느니 바라건티 신의 벼슬을 환  
슈하시면 일후 다시 올라와 성은을 만분지일이나 감사올가 하느이다 하엿거늘  
(上11b)

9) (영낙황제)왈 남방 인심이 불순하하기로 특별히 경을 보느니 착실  
이 순무하여 민심을 진정하라 하신티 어시 슈명하고 부중의 도라와 성은을 감  
축하고 즉시 왕상셔귀 나아가니(上12b)

10) (어수 문왕)네 세상의 나미 그 소성지디를 모르는지라 그티 부쳐는 나

를 양육하여스미 응당 너 근본을 알지니 조초지종을 이르면 반다시 은혜를 갚  
호리라(上16b)

11) 소현령이 숲퍼보다가 하리를 불너 셔용을 가르쳐 왓 이사람은 비록 셔  
릉의 아이나 그중 마음이 어저러 나의 죽음을 구하여 너 스라낫스미 이쫂으로  
어스고 고흐라(上21a)

12) 어시 은금을 니여 제승을 논하쥬어 모친과 이십년 동고하던 은혜를 스  
레하여 제승이 낙누하여 연연치 아니하니 업는지라(上23b)

13) (어시 '왓')셔릉지당을 다 죽일 거시오 조티부처는 비록 소조를 혹양호  
공이 이어나 또호 형벌을 면치 못하리소이다 현령 부뷔 왓 그 죄는 살지무석  
이나 오류년 젓먹인 공이 적지 아니하미 부티 용서하라 하니 어시 슈명하고  
(上23b)

14) (어시)셔용을 먼저 올너 꾸지져 왓 너는 흥적의 동기로 능이 어진 마음  
을 숭상하니 그 천성을 가히 알지라 나의 부피 널노 말미아마 성명을 보전하  
여 계시니 그 은혜 적지 아니하고로……또 조티를 불너 슈죄 왓 너는 흥적과  
동심하여 나의 부모를 히하였스미 그 죄 만난의 설거시로티 나를 삼스년 양혹  
호 은혜를 생각하여 감스 정비하니니 추후는 기과천선하라 하고(上23b~24a)

15) 덩부인 왓 쥬파의 은혜를 잊지 못하니 의정이란 우물을 치고 희골을  
츠조 정호터 무더쥬고 시너로 하여곰 나의 두어줄 글노 그 의기를 표하라 하  
니 어시 즉시 본관의 분부호지라……이의 의금판관으로 안장하고 제던호 후  
비를 세워 그 의기를 표하니라(上24a)

16) (현령 왓)부지 호 가지로 나아와 호잔 술로 그티 은혜를 스레코져 하여  
니 먼저 왓노라(上24b)

17) 어시 왓 그티는 나의 부친의 은인인 고로 이제 스레코져 하여 이르렀느  
니 그티는 괴로이 여기지 말나……그티의 구호미 아니런들 엇지 오늘날 부친  
을 뵈오리오 그 은덕을 생각할진디 부모와 갓치 섬길거시로티……어시 불물  
단조를 도공이 드리니 도공이 불승감은하더라(上25a)

18) (어스 부즈)의산을 불너 슈천금을 쥬어 난계 사람의 은혜를 각별 스레  
하며 춘선의 시신도 함과 실어오라 하고……현령 부즈 나아가 관을 붓들고 통  
곡하며 제문 지어 치제하고 의산으로 하여곰 춘선의게도 또호 치제호 후 십여

일을 머물너 운구호여 탁쥬로 보너니라(上25b~26a)

19) (소시랑이)궐하의 나아가 숙사호티 상이 편견으로 인견호스 스쥬호시고  
전후 고락을 못네 칭찬하시니 시랑이 다만 고두호여 성을 감축호더라(上  
31b)

20) (상이 왕)경의 충성을 표할거시 업기로 아직 여간 관작을 쥬느니 경은  
모로미 동동축축호여 짐을 도오라 호시며……상세 돈슈스은호고 부종의 도라  
와 장부인긔 뵈온티(上34a)

21) 상이 특별이 스쥬호시고 왕시로 한국정녕부인을 봉호시니 상세 천은을  
숙스호고 부종의 도라와 이 소연을 전호고(下7b)

22) (왕상서 왕)이제 천은이 망국호스 어린 아회 몸이 봉작이 충호기로 비  
록 출가한 녀치는 장복을 갖초와 스당의 고호고(下8a)

23) (상이)왕경더러 왕 경의 녀아로 원위를 주고 공쥬로 둘지를 정호느니  
경은 지실호라 호신티 왕공이 스은회열호고 부미 초호 다횡호를 마지 아니호  
여(下9b)

24) 왕시 왕 승상이 그 절형을 이미 앗기진마는 부미 두 안히 뚝도 법외지  
시라 옥주의 별은틱으로 국법을 어긔여스미 승상이 미일 외람호를 일코느니라  
(下13a~13b)

25) 승상 왕 심이 본티 화가여성으로 선음을 힘입어 임신양명하미 천은이  
망국호여 이의 왕시를 취호고 버거 초 부미 되오니 영총이 가장 지극호거늘  
(下14a)

26) 조시 소승상의 갓갓지 쥬선호를 감스호여 덩공더러 왕 소승상의 은혜  
가장 지극호미 혼장 글노 그 은혜를 스레호고 녀아의 원스호를 괴별호여 빚가  
의 원슈를 감게호미 엇더호노(下17b)

27) (정소저 왕)우리 만스여성으로 갈 곳이 업더니 존스의 구호시들 입을진  
티 그 은혜 빅골난망일가 호노라(下18b)

28) 상이 티열호스 일변 그릇호시를 일코르시며 일변 효유호시니 승상이 불  
승황감호여 천은을 숙스호고 상부로 나아가니라(下19b~20a)

29) (정소저)옥단으로 호여곰 승상의 전어호여 왕 엇지호여 이곳의 이르러  
게시며 이왕 승상과 천디갓흔 은덕을 입어스오미 디하의 가도 잊지 못호을비

오(下24a~24b)

30) (승상이)제승더러 왈 우리 모친이 이의셔 보신후신 은혜 토탄갓더니 또 당소제 이곳의 이르미 막비천쥬니 엇지 괴이치 아니후리오(下24b)

31) (정소저 편지에)갈라스되 박명 첩 소아는 소승상과 올니느니 상공이 첩의 부모를 구후온 은덕이 땅극후오며 디하의 가도 눈을 감지 못후올지라(下26b)

32) (정소저 승상 답간을 보고)탄식 왈 군지 첩을 앓기소 이갓치 생각후시니 그 은덕이 더욱 가히 업습거니와 만일 상공 교훈터로 후오면 상공의 시비 이슬거시오(下27b)

33) 성(정현)이 간과의 불승감격 왈 소사와 너는 괴이후 천정비필이라 엇지 인세의 환난질고후노뇨 (정)소저 왈 명명후 천슈를 도망후리잇고 이제 슬하를 모시미어든 다 소승상의 은택이로소이다 후고 유육을 성비후여 방은 등을 각별 디접후여 십여일을 쉬여 도라보닐시(下29a)

34) 덩공이 부인 등 일행을 본부로 도라보내고 막츠의 드러 좌정 후 소승상 부자와 왕상서 부지 또한 이르러 천은이 능성후를 감축후시 덩공이 평장스인 슈를 맞치며 표를 지어 올니니(下30a~30b)

報恩. 모티프는 모두 34 가지로 추출할 수 있는데, 서사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모두 고르게 나타난다. 즉 1)~18)번까지는 전반부에, 19)~25)번까지는 중반부에, 26)~34)번까지는 후반부에 해당된다. 앞서 제시한 別表에서는 보은 단락<sup>53)</sup>이 전·후반부에 걸쳐 각각 하나씩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작중 인물의 報恩意識이 그들의 구체적인 行動보다는, 對話나 서술 상황 등을 통하여 훨씬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은 모티프의 내용은, 위의 패턴화 양상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확

53) 別表의 보은 단락에 해당하는 보은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 변화를 연관시키면 다음과 같다. 방법은 註 51)번과 同一함. 전반부 : 42→15, 16, 17 / 후반부 : 87→33

인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好意에 대한 謝禮를 뜻하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도 있고, 恩惠에 대해 結草報恩하고 地下에 가도 잊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도 있으며, 실제 지난 恩德에 대해 구체적으로 謝恩하고 報答하는 행위도 있다. 아울러 聖恩에 대한 感謝의 표현도 文面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보은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 중 聖恩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11가지나 되어,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聖恩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서사의 중반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며<sup>54)</sup>, 심지어 중반부에 드러난 報恩 모티프는 모두 聖恩에 대한 감사의 표현<sup>55)</sup>이라는 점이다. 이 또한 중반부의 줄거리가 소퇴의立功과 富貴獲得의 확인을 위한 婚事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앞서 우리는 〈月峯記〉에는 복수담이 전·후반부에 걸쳐 대를 이루어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제 보은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작품의 주요 내용이 복수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작자는 대화의 곳곳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보은 모티프를 삽입시켜, 원수를 갚겠다는 復讐意識 못지않게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報恩意識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중인물의 情緒가 복수 의식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며, 잠시 후에 논할 貞節 모티프와 함께 이 작품의 性格을 규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다음은 끝으로 貞節 모티프를 살펴보기로 한다. 貞節 모티프는 모두

54) 보은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 중 聖恩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 8), 9) / 중반부: 19), 20), 21), 22), 23), 24), 25) / 후반부: 28), 34)

55) 중반부 24)번에 나오는 ‘옥주의 별은턱’이란 말도, 공주 자신이 소퇴의 차(次)부인이 되어도 좋다는 옥주(공주)의 결심을 임금이 허락한 것이므로, 聖恩에 대한 감사라 할 수 있다.

55가지로 상당히 긴 분량이나, 京板本을 대상으로 한 〈月峯記〉의 작품 분석은 본고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시를 결합하여 모두 열거하기로 한다. 작품에 드러난 貞節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을 스토리 진행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절<sup>56)</sup> 모티프〉

1) (서릉, 왈)이 씨의 실은 저물이 이피 만코 또한 장중의 잇는 부인이 절식인줄 보았느니 엇지 그져 두리오 허거늘……(서용, 왈)그 부인이 죽어도 형장을 용납지 아니허리니 형장이 비리지스를 힘하고 엇지 천앙을 맞지 아니허리오(上2a)

2) (당시, 왈)서가 축성이 었던 놈이완터 나를 이갓치 슈욕하며 그터 또한 사람이여든 엇지 이런 말노 너귀를 더러이느뇨 나는 죽기로써 결단하느니 다시 욕된 말노 입을 놀너지 말나(上3b~4a)

3) 서용이 소리를 나죽이 하여 갈오터 니 부인을 구코져 하여 이르렀느니 주파는 부인을 모셔 몸을 감초와 욕을 면하라 허거늘(上4b)

4) 주피 왈 부인 말슴도 감스허거니와 부인은 일정 욕을 당홀거시니 지체치 말고 밧비 힘하소서 허거늘(上5a)

5) 노승이 나와 합장 왈 이곳은 남치 업소오니 의심치 말고 잠간 머므소서 허거늘 당시 이 말을 듯고 깃허여(上5b)

6) (너승, 왈)이곳은 체불제천이 계시미 아회를 다리고는 머므지 못홀거시오 아회를 위하여 이곳을 썬나면 부인이 강도의 욕을 면치 못허리니(上5b~6a)

7) (당시)노승더러 왈 첩이 존스의 구활지덕을 입어 이곳의 머무나 산여 가장 엇트미 도적이 찾기 쉬오니 바라건터 김피 은신할 곳을 가르치라(上6a)

8) (왕소제)황궁하여 유모더러 문왈 아니 나간즉 부명을 어긋미오 나간즉 외직을 상터하미 네 아니니 엇지하면 조호리오(上13a)

9) (당시, 왈)첩이 또한 도적의 욕을 두려 산문을 나지 못하고 마지 못하여

56) 여기서의 '貞節'은 '信義'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유아를 길히 바린 후 지금 소성을 모르고 서름으로 세월을 보낸지 이의 십구  
년이라(上16a)

10) (서부인 왈)너즈의 몸이 한번 사람의게 허하면 다시 곳치지 못하는 거  
시리 저를 그르다 못헐비오 만일 황명이 지엄하시면 제몸을 반다시 맛츠리니  
(上27b)

11) (왕소저 왈)비록 납폐는 아니하였으나 야애 소녀로 소성을 뵈여 부부지  
네를 이루엇스미 소녀는 죽어도 봉송치 못하리소이다……만일 불연즉 소녀  
의 성사야 무어슬 구원하리잇고(上28a)

12) (황후 왈)너즈의 절형의는 나라 위엄으로도 억제치 못하느니라(上  
28a)

13) (상서 왈)이의 소리로 정혼호와 빙폐는 아니 바다스오나 서로 뵈엿소  
미 우츨흔 녀쳐 일관도이 고집을 세우려 호오니 사세 난쳐하여이다 상이 양노  
왈 이는 경이 국혼을 피로이 녀기미라 늑네전의 외간남즈를 뵈는 바 어디 이  
스리오(上28b)

14) (왕소저)정식 왈 야야는 다시 이르지 마르소서 인명이 비록 중타 하오  
나 의리에 어긋오면 엇지 구츨히 투싱하리잇고(上29a)

15) (왕소저)조흔 이 괴미를 알고 싱각호되 소상서는 부귀를 탐하여 비약헐  
사람이 아니언마는 공사의 골물하는 중 혼인 일스를 밋쳐 부모의 고치 못흔  
연고로 이의 밋쳐스미 박명호 경이는 속절업시 공규의서 늑으리로다 호고 탄  
식하더라(上32b)

16) (장부인 왈)천은이 황감호른 이르지 말고 저 납병호 일이 난쳐하나 그  
러하나 무단 실신헌미 아니로터 정가 너즈를 위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리로다  
(上32b)

17) 소시랑이 시즈를 덩부의 보너여 왈 소관이 실신크져 호미 아니로터 군  
명을 감히 거역지 못흔 존공도 조흔 숭피신티라 사세 여츨하미(上33a)

18) (덩소저 왈)부비 소녀로 소가의 허혼호스 그 성명을 바다신즉 그날부터  
소가의 사람이라 다만 소가 성명을 직회여 일성을 맞출 짜름이여늘 이제 현훈  
을 보내고 무어슬 의지하라 호시느뇨 소녀는 죽어도 다른 뜻이 업느이다(上  
33a)

19) (당소저)피석 터왈 부외 미양 소녀를 혼계 하시되 장부는 총회 웃듬이 오 녀즈는 정절이 제일이라 하시를 익이 드렸습는지라 정혼후 후 빙물을 바든 즉 전안한 뉴와 경중이 업습거늘 이제 명괴 여초하시니 이는 조식을 실절함을 가르치미라 녀지 실절하기의 미쳐는 혼갓 부모 명이라 하여 순종하오면 이는 급슈와 일반이니 죽어 디하의 가 정부넌녀를 엇지 보리오 하거늘 덩공이 드르미 언즉시애라 침음양구의 왈 네 이른바는 녀즈의 덧덧흔 도리여녀와 성인도 권되 잇느니 너는 편벽도이 고집지 말나 소저 왈 권도라 하는 거슨 녀즈 절형 이는 당치 아니하온 일시오 굿티여 남의 그르블 조출비 아니오미 터인은 숭괴스 소녀의 뜻을 일우워 불효를 세치게 마르소서(上33a~33b)

20) 상세 터왈 혼스일절을 고치 못하오른 후회막급이오며 덩녀의 신세도 가련타 하오려니와 왕가녀즈도 조흔 다른 마음이 업스올지라(下1a)

21) 신(소티)이 입신하온 후 왕경이 구혼하여미 신이 무지하오므로 부명 업시 허혼하옵고 왕녀로 서로 보오니 동대연과 다름이 업스온지라 이제 만일 실신하오면 왕네 반다시 공규의셔 그져 늙을 거시오니 이는 둘지 난쳐하오미오 또 왕가의 일을 신의 아비 밋쳐 아지 못하옵고 덩현의게 허혼 힘빙하였다 하오니 사세 편당치 못하온즉 덩녀의 신세 조흔 가련하온지라 이는 셋지 난쳐하온 일이오니 신의 무신하므로 아녀즈의 전정을 맞칠지라(下1a~1b)

22) 공췌 왈 소티의 성명과 빙물은 오직 소녀의 일성 근본이라 이제 빙물을 도로 니여쥬셔도 소녀는 다른 스람을 즐겨 좇지 못하리로소이다(下2a)

23) 공췌 왈 소녀는 죽어도 타성을 섬기지 아니하을 거시오……소네 금중의 이셔 부모 슬하를 되셔 세월을 허비하다가 왕시 여러 조식을 닳커든 혼나홀 다려다가 소녀의 일성을 의지코져 하옵나니(下2a)

24) (왕소저 왈)그터는 문족이라 필니의셔 이런 뜻을 두실지라도 그터 문건 터로 술오미 올케늘 이제 도로혀 나를 달녀 실절한 스람이 되고져 하니 그터를 위하여 익달나 하느이다……소제 탄식 왈 소상서의 절충 인연은 아란지 오리미 다시 이를비 업거니와 박명흔 인성은 속절업스니 그터는 다시 말말나(下3a~3b)

25) 공췌 왈 소네 이 일을 아는 비라 왕네 아모리 하여도 타인을 섬길 뜻이 업스올거시미(下4a)

26) (상 왕)짐이 소티를 사랑하여 부마를 삼고져 하더니 드른즉 왕네 죽기  
로써 고집한다 하리 국혼이 피편하기로 소티의 명첩을 도로 너여 주느니(下  
4b)

27) (소상서 왕)이는 주상과 구차함이 업게 하고 공궤 스스로 절행을 직히  
여 잠간 군부를 소기미여니와(下4b)

28) (공주 왕)소녀는 곳 소가의 사람이라 폐히 만일 슬피지 아니하시면 소  
녀는 만다시 세상의 머므지 못하을 거시니 소네 죽은 후 소가 현혼과 성명을  
관의 너히주시면 구천의 도라가 혼비가 의지하리로소이다(下5b)

29) (황후 왕)이제 난쳐흔 사색로 혼인을 허하시고 주식의 절행을 위하여  
엇지 변기함이 이스리잇고……(공주 왕)원니 너즈의 형실은 덕을 닳가 군조를  
섬기미 맛당하옵고 선후의 혐의를 보느니 업느이다……(상 왕)너즈의 절행을  
아스려 흥도 그르고 이팔청춘으로 하여곰 규방의서 속절업시 늙게 하며 또한  
인정이 안나기로 마지 못하여 공주로 소티의 처부인을 삼으려 하느니(下6b)

30) (왕세 왕)부녀의 종신지도는 고금의 다름이 업는지라 형음하는 창네아  
일진디 군조의 현혼과 명첩을 도로 너여 주지 아니 하느니 첩이 어왕 공주를  
본즉 유순정직하되 단당코 그런 형소를 감심하여 누명을 취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드른즉 천지 단조를 바다 부마를 간택한다 하리 공주 맛당이 죽기로써  
저쳐하리니(下8b~9a)

31) (소상서 왕)이제 그디의 말을 드른즉 성상과 우리를 잠간 소기미여니와  
니 죽기로 사양하여 그디를 저바리지 아니하리라(下9a~9b)

32) 왕시 왕 그러하거니와 황명이 나린 후 정소계 소시 빙물을 죽기로써 주  
지 아니하리 그 부피 혈일 업서 공궤의서 그저 늙기로 허하였다 하디이다(下  
13a)

33) 왕시 왕 승상이 그 절행을 이피 앗기전마는 부미 두 안히 들도 범외지  
시라(下13a)

34) (공주 왕)맛당이 승상과 고향여 괴미를 안 연후 황상과 주달하여 절행  
잇는 너즈로 원엄함이 업게 하리니(下13b)

35) 왕시 왕 상공이 덩소져를 모로노라 하시니 이는 덩녀의 일을 거절코져  
하시미니 엇지 장부의 혈버리오 첩등은 비록 녀지나 그런일을 그옥이 취치 아

니하느이다(下13b)

36) 츠시 덩터부의 부인 조시 이 괴별을 듯고 천디 아득하여 단검을 품고 시현교의 나아가 혼가지로 죽으려할시 소제 조흔 칼를 품고 부인을 붓드러 가고(下15a)

37) 덩공이 왈 누인이 심환고토히기를 괴약지 못하니 녀즈는 집의 이스미 아버를 조츠미 당연히지라(下16a)

38) 덩공이 발연 터로 왈 그터 이럿툏 무례무식하니 너 녀아를 죽여도 그터의 며느리를 삼지 아니히리라 하고 괴식이 녀담히지라(下16b)

39) (덩소져 왈)혼인은 인륜터시라 무례히 못헐거시니 감히 너 부모를 꺾박지 말고 좌우를 다 치우며 스군도 다른 비로 올라 혼잡지 말진터(下16b)

40) (덩소져 왈)너 본터 소시를 위하는 널뵈 엇지 너갓흔 축성의게 감심히리오 하고 물의 뛰여들거늘……만강 사람이 다 칭찬 왈 그 소저는 절희쌍전하도다 만일 그 몸을 움기지 아니하고 죽어던들 엇지 그 부모를 구하여스리오(下17a)

41) (덩공이)통곡 왈 괴특하도다 나의 녀아여 효와 절를 잡아 스스로 죽어 일홈이 원근에 닳타나니(下17b)

42) 야선 왈 이 암자는 속직의 조취 업느니 넘너 마르소서 하고 삼인을 다리고 산중으로 드러가니라(下18b)

43) (야선 왈)당시 소적을 괴록고져 하여 비를 세워서되 남자의 글을 청하며 불가히기로 빈 비를 세운거시오(下19a)

44) (승상이)탄복 왈 무론남녀하고 뉘 아니 효절을 숭상히리오마는 이제 우리 모친의 절행을 썻를 녀저 이스니 그 아니 괴이히리오(下21b)

45) (녀승 왈)년전의 녀즈 삼인이 이르러……이곳의 머물시 조연 덩부인 고적을 듯고 기중 소년 남치 가장 감탄하여 비문을 조청하여 짓고 벽상 시도 그리히여다 하거늘(下22a)

46) (야선 왈)부녀의 괴물을 외간 남치 위력으로 탈취히시미 네 아니니 썰니 너여 쥬소서 하거늘……소제 터경 왈 너 양조강 험익을 지닌 후로 천하의 불인불의한 조를 다시 맛날가 두리더니 오늘날 이 심산중의서 쏘 이런 사람을 맛는를 엇지 뜻하여스리오 하며 빗비 츠조오라 하거늘(下22b)

47) 승상이 즉시 (봉서를) 써혀 본즉 조그 부친 필적이 완전하여 덩가의 보낸 훈서와 약간 치단을 봉하였는지라(下24a)

48) (정소저)탄왈 그 뜻을 알니로더 너 마음과 다르니 엇지 스스로이 남조를 상티히리오 히더라(下25a)

49) 승상이 탄왈 소저의 고절청심은 고급의 회한히도다(下25b)

50) (정소저 왈)만일 상공 교훈더로 히오면 상공의 시비 이슬거시오 소힘으로 갈진디 비운갖흔 뉴의 화란이 이슬가 히오니 곳쳐 심각하스 지휘하시를 바라노이다(下27b)

51) (승상 왈)덩소저는 날노 더부러 성네를 아니 히여스나 은정은 범상헌 부귀 아니라 여등은 성심을 극진히 히여 올능도의 무스히 득달한 후(下28a)

52) 공주 왈 당시 절형을 첩도 알거니와 평일 상공의 무정함을 한하던 비라……두 부인이 서간 등을 보고 차탄 왈 이제 덩소저의 절형은 고급일인이라 죽기를 초기갓치 너기니 그 마음을 닐 능히 아스리오(下29b~30a)

53) 소공이 소저의 안부를 무려 왈 우리 조흔 안면으로 혼스를 언약히미 도로혀 숙녀의 일성을 히지오미 되니 나의 무신무의함을 축나치 못히로다(下30b)

54) 우각노 소운이 부복히여 덩녀 혼스를 주히여 왈 이제 바리지 못함을 비로더 덩현의 부네 혐의를 잡아 고집하노이다(下32a)

55) (상이)덩녀의 전후수연을 칭찬하스 왈 이제 왕시로 소퇴의 원위를 존하문 소퇴의 당초 신의를 완전코져 히미오 덩녀의 형실이 또한 괴특히미 공췌 그 위를 제 우회 두려 히려니와 공주로 삼부인 위를 주면 왕당 양인이 불안할 거시니 덩시로 절효절현부인을 봉히여 소퇴의 좌우 부인으로 정히시고 흠전감으로 히여곰 퇴일히여 밋비 성네하라 하시니라(下32b)

貞節 모티프에서 ‘貞節’은 ‘毀節’을 전제로 한다. 타인의 節概를 깨뜨리고자 하는 주체의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맞서 자신의 節概를 지키고자 하는 주체의 행동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別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절-정절〉항은 서로가 바로 이웃 단락이거나, 同一 단락으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훼절’을 제외한 ‘정절’만을 살펴보아도 작품의 意味 파악에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

別表의 〈훼절-정절〉항을 보면, 貞節 단락의 頻度가 중반부, 후반부, 전반부의 순으로 드러나고 있는데<sup>57)</sup> 이러한 현상은 貞節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모두 55가지의 모티프 중 1)~9)번까지는 전반부에, 10)~35)번까지는 중반부에, 36)~55)번까지는 후반부에 해당되어 중반부, 후반부, 전반부의 순으로 정절 모티프의 頻度가 드러나고 있다.

貞節 모티프의 전반부는 8)번을 제외하고는 소타의 母 정씨의 정절에 관한 것이다. 왕소저의 정절이 드러난 8)번은 비록 서사의 전반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중반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전반부의 정절 모티프는 모두 정씨의 정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씨는 水賊 셔룡의 약탈을 피하여 도적의 소굴을 탈출한 뒤, 월봉산 자호암에서 忍苦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가족과 相逢한다. 貞節을 지키기 위한 정씨의 이러한 苦痛은 9)번에서 쉽게 확인된다.

중반부는 정절 모티프가 26가지나 되는데, 왕소저, 공주, 정소저의 순으로 頻度가 드러난다.<sup>58)</sup> 또한 婚事障礙로 인한 갈등 속에서 소타가 느끼는 信義와 관련된 내용도 여섯 가지<sup>59)</sup>나 드러나고 있어, 작자는 이 작품에서 여성의 貞節뿐 아니라 남성이 지켜야 할 信義도 강조하고 있

57) 別表의 정절 단락에 해당하는 정절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 번호를 연관시키면 다음과 같다. 방법은 註 51)번과 同一함. 전반부:5→3/9→7/ 중반부:47→11/54→15/55→17, 18, 19/57→21/58→22, 23/59→24/60→26/ 후반부:72→37, 38/73→39, 40, 41/83→48, 49/93→55

58) 왕소저의 정절: 10), 11), 12), 13), 14), 15), 24), 25), 26)번

공주의 정절: 22), 23), 27), 28), 29), 30)번

정소저의 정절: 18), 19), 32), 33), 34)번

59) 소타의 신의: 16), 17), 20), 21), 31), 35)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말 부분인 55)번에 드러난 ‘이제 왕시로 소티브의 원위를 존호른 소티브의 당초 신의를 완전코저 함미오’라는 임금의 말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중반부는 그 줄거리의 특성상 정절 모티프가 가장 많이 文面에 나타나고 있는데, 왕소저, 공주, 정소저 등은 모두 守節意識이 투철하면서도, 이들은 한결같이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해 주고 투기와 시기를 하지 않는다. 요즈음의 사고로 보기에 그 정도가 지나칠 만큼 철저한 이들의 守節意識은 위에서 제시한 정절 모티프 곳곳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19), 40)번 등에서 볼 수 있듯이<sup>60)</sup>, 여성의 貞節이 忠孝와 같은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어, <월봉기>에서 守節意識은 바로 儒敎理念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반부는, 월봉산 자호암 女僧들의 관습과 관련된 4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소저의 정절에 관한 것이다. 정소저는 貞節을 지키려고 비응의 무례한 행동을 피하여 자신의 몸을 投江한 뒤, 거북과 女僧 야선의 도움으로 월봉산 자호암에 이르러 忍苦의 세월을 보내다가, 소티브의 도움으로 가족과 相逢하고 중국에는 소티브와 結婚하게 된다. 전반부의 정씨의 정절과 대를 이루어 후반부에는 정소저의 정절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들이 忍苦의 세월을 보내며 節行을 닦던 곳이 모두 월봉산 자호암이라는 同一空間인 것도 특징이다. 결국 서사의 전반부에는 정씨의 貞節이, 중반부에는 왕소저, 공주, 정소저의 貞節이, 후반부에는 정소저의 貞節이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패턴이 플롯의 기능을 위해 활용된다는 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패턴화 양상은 작품의 의미가 해명되는 플롯 단계인 「키 모멘트 Key-Moment」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61)</sup> 이런 면에서 볼 때 <月峯記>는,

60) ‘장부는 충회 웃듬이오 녀즈는 정절이 제일이라’ - 19)번

‘만강 사람이 다 칭찬 왈 그 소저는 절화쌍전호도다’ - 40)번

61) 한용환, 앞의 책, 447면.

앞서 제Ⅲ장에서 順次的으로 分節한 段落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부의 (39)번과, 후반부의 (93)번이 키 모멘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단락 (39)에 와서야 정씨는 貞節을 지키며 忍苦의 세월을 보낸 보람으로 가족과 相逢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怨이 풀리고 復讐意識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단락 (93)에 와서야 정소저는 자신과 가족의 怨讐를 완전히 갚게 되고, 그동안 貞節을 지키며 고생한 보람으로 임금의 命을 받아 곧 소티와 婚禮를 올리게 된다.

이상 주로 作中人物의 대화 속에 드러난 주요 모티프의 패턴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月峯記〉에는 ‘復讐·報恩·貞節’이라는 세 가지 모티프가 패턴화되어 스토리 진행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sup>62)</sup>, 이러한 요소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중인물이 겪게되는 〈分離－試鍊－結合〉이라는 原型的 循環構造와 맞물려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티프는 敍事가 진행됨에 따라 그 頻度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난다. 즉 전반부는 보은 모티프가 우세한 가운데, 복수·정절 모티프는 약하게 드러난다. 중반부는 정절 모티프가 우세한 가운데, 보은 모티프는 약하게 드러나며, 복수 모티프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후반부도 정절 모티프가 우세한 가운데, 보은·복수 모티프는 약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모티프의 頻度로만 보면, 작품 전체에서 복수

62) 김태준은 ‘〈월봉기〉류’ 소설을 언급하면서, “대체 비극적 요소를 많이 가진 復讐類는 가장 독자의 마음을 끄는 것으로 정염류와 병행하여 일시의 世好에 던져 문단을 풍미하는 것이니……”(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225면.)라고 하여 이들 소설의 특징을 ‘복수류’로만 파악하였다. 한편 이명구 교수도 〈월봉산기〉의 주제를 논하면서, “이 작품은 〈羅衫再會〉의 경우처럼 貪財 貪色을 경계하는 것 외에 다시 인간이 주어진 인연에 따라 離散도 하고 合致도 하는 奇逢의 要素를 내포하면서 특히 女行을 높게 제창하는 勸善懲惡의 도덕성을 강조한 소설이라고 해야 하겠다.”(이명구, 「〈월봉산기〉 연구－비교문학적 견지에서－」,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29집, 성균관대학교, 1981, 20면.)라고 하여 작품의 의미를 비교적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나, 스토리 진행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는 報恩意識과 復讐意識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모티프가 가장 약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서사의 전개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반부에 복수 모티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중반부에는 惡人이 등장하지 않고 소타의 立功과 富貴獲得을 강조하기 위한 婚事問題로만 그 줄거리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 V. 結 言

〈月峯記〉는 明末 馮夢龍이 편찬한 三言 중의 하나인 『警世通言』 제 11卷에 나오는 〈蘇知縣羅衫再合〉을 翻案한 翻案小說이다. 異本으로는 鏡판본, 한글필사본, 한문필사본, 활자본 등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題名으로 變異되거나 改作되어 〈月峯山記〉, 〈蘇雲傳〉, 〈蘇學士傳〉, 〈鳳凰琴〉, 〈玉簫傳(江陵秋月)〉, 〈玉簫奇緣〉 등의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월봉기〉류’ 소설 가운데, 그동안 대다수의 논자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은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활자본으로 간행된 자료였다. 또한 翻案小說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들에 관한 개별적인 작품 자체의 분석은 치밀하게 고찰하지 않은 채, 원천작품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翻案樣相을 밝히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월봉기〉류’ 소설들의 變異樣相과 그 계열 파악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京板本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以上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판본 〈월봉기〉는 파리 東洋語學校에 소장되어 있는데, 67장본과 66장본이 있다. 이중 67장본이 先本인 동시에 善本이다. 경판본 〈월봉기〉는 당대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으며, 활자본 〈월봉기〉나 〈월봉산기〉보다 반세기 이상이나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다. 또한 활자본 〈월

봉산기)에 나타난 내용상의 모순이나 당착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월봉기〉류’ 소설들의 變異樣相을 고찰할 때는 경판본 〈월봉기〉를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월봉기〉의 내용을 96개의 段落으로 順次的으로 分節하여, 전체의 줄거리를 삼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중 전반부는 원천작품의 줄거리와 거의 일치하며, 중반부·후반부는 이 땅에서 새로 창작된 내용이다.

이러한 段落分節에 의하면 〈월봉기〉는 작중인물의 헤어짐과 만남의 양상이 〈分離－試鍊－結合〉이라는 原型的 循環構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復讐와 報恩’, ‘毀節과 貞節’을 뜻하는 인물의 행위도 작품 전체에 걸쳐 되풀이하여 드러나고 있다. 또한 〈월봉기〉에는 ‘복수·보은·정절’ 모티프가 인물의 대화나 내적 독백 등을 통해 패턴화되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사의 전반부에서 소타의 母 정씨가 겪는 〈분리－결합〉의 양상과 후반부에서 정소저가 겪는 〈분리－결합〉의 양상은 女性受難과 節行의 鼓吹라는 점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작자는 전반부에서 정씨가 겪었던 苦痛과 또 그녀가 堅持했던 節行鼓吹意識을 후반부에서 정소저에게도 똑같이 반복하게 함으로써 은연중 貞節觀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月峯記〉는 전·후반부에 드러난 〈분리－시련－결합〉이라는 원형적 순환구조가 중반부의 婚事過程을 축으로 하여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큰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리－시련－결합〉의 과정 속에서 작중인물들은 雪冤의 의지와 復讐心에 불타기도 하고, 조력자에게 報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毀節의 위험에 맞서 목숨을 걸고 貞節을 지키고자 노력도 하는 것이다.

〈月峯記〉에 드러난 복수 모티프는 원천작품의 줄거리에 충실한 전반부의 복수담에다, 이 땅에서 새롭게 창작된 후반부의 복수담이 첨가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전반부의 복수담에 대를 이루어 후반부에도

복수담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후반부 모두 惡에 대한 善의 勝利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작자는 대화의 곳곳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보은 모티프를 삽입시켜, 원수를 갚겠다는 復讐意識 못지않게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報恩意識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守節意識도 강조하여, 서사의 전반부에는 정씨의 貞節을, 중반부에는 왕소저, 공주, 정소저의 貞節을, 후반부에는 정소저의 貞節을 반복적으로 패턴화시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月峯記〉에는 ‘復讐·報恩·貞節’이라는 세 가지 모티프가 패턴화되어 스토리 진행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중인물이 겪게되는 〈分離－試鍊－結合〉이라는 原型的 循環構造와 맞물려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표제와도 연관이 있는 월봉산 자호암의 空間的 意味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즉 월봉산 자호암은 첫째, 정씨가 가족과 分離되어 忍苦의 세월을 보내면서 節行을 닦던 곳이다. 둘째, 정소저가 빈궁의 艱難을 피해 물 속에 뛰어들 뒤, 거북의 도움으로 回生하여, 이곳에 머물면서 정씨의 節行을 欽慕하고 본받던 곳이다. 또한 이곳에서 소티를 만나 소티의 도움으로 가족과 結合한 뒤, 소티와의 婚事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곳이다. 셋째, 소티가 남방에 設科하러 가는 도중 목욕탕에서 풍랑을 만나 우연히 이곳에 이르러 모친과 정소저의 節行을 몸소 확인하고, 困境에 처한 정소저를 도와준 곳이다.

이상 본론에서 행한 段落分節과 패턴 分析 방법은 異本에 따른 각 모티프 간의 첨가·부연·축약·삭제의 변화를 살펴, 以後 이본 및 계열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도 널리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며, 본고에서의 부족한 점은 앞으로 ‘〈월봉기〉류’ 소설에 관한 논의를 확대해 가면서 보완하기로 한다.